

10TH

RaonAtti

Thailand

Team

Final Story



# Contents

## \* 주요 활동

1. Love Coffee
2. End Poverty Campaign
3. School Program

## \*\* 개인 변화 느낌 및 팀 변화





LOVE

COFFEE

# Purpose is...

- \* Organic Farm과 함께 일하기.
- \* 러브&케어 프로젝트의 일환



# Related with...

- \* 러브커피 페인팅으로 10기의 첫 활동 시작
- \* 오픈식과 10기 환영회를 함께



# Activity is...

\* 시작하기 : Cafe 페인팅, 10기 첫 활동  
오픈식& 10기 환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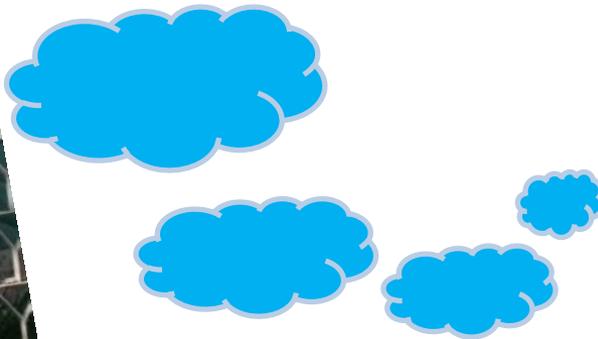




- \* 배우기 : Suan Lahu 커피농장 방문  
커피 만들기
- \* 운영하기
- \* Love&Care 방문하기

**E**nd

Po  erty



**C**ampaign

In **L**ove Coffee **C**afe



## \* 왜 Talk Concert인가?

Love & Care 홍보, 흥미 유도, 커피숍 홍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Poverty의 개념이 가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빈곤, 이기심, 질투심, 무시 이런 모든 것들이 빈곤을 만든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못했던 빈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 \* Talk Concert에서 우리의 역할은?

장식이나 내용면에서 모두 Poverty의 개념의 다양성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라온아띠 단원들에게 빈곤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PPT로 만들어 서로 공유하고자 했다. Poverty와 관련된 영상과 사진 전시도 했다.



<Time Table>>

18:00 - 18:30

- Welcoming & Greeting.
- Writing the idea of End Poverty and looking exhibition with music!(Just playing records!)

18:30 - 19:00

- Gathering participants in front of Love coffee(Where is installed the stage!).
- Welcoming performance : RaonAtti playing Jang-gu.
- Welcoming by MC.
- Dinner.
- Break time : Song(2) - 2'15m.

19:00 - 19:15

- The Organic Agriculture with End Poverty ( by Jeerawan Sodawad).
- Q&A.

19:15-19:25

- Break time : video.

19:25-19:45

- Living with the nature to end poverty ( by Ms. Patcharn Auphan).
- Q&A.

19:45-19:55

- Break time : video(2).

19:55-20:00

- Explaining about exhibition & Dividing sheets to audience ( for promising tree).

### Love Coffee

ร่วมพูดคุยแลกเปลี่ยนแนว  
ทางเพื่อแก้ไขความยากจน

## แก้ไขความยากจน

- วัน-เวลา: วันเสาร์ ที่ 12 ตุลาคม 2556 เวลา 18.00 น.  
- สถานที่: Love Coffee shop  
- หัวข้อหลัก: การแก้ไขความยากจน

**เนื้อหา**

การแก้ปัญหาความยากจนนั้น เริ่มต้น  
ด้วยสาเหตุต่างๆ  
ซึ่งสาเหตุเหล่านี้เป็นต้นตอของปัญหา  
ความยากจนที่เรากำลังเผชิญอยู่

# 시간표&포스터



# 무엇을 준비했나?

# Poverty의 의미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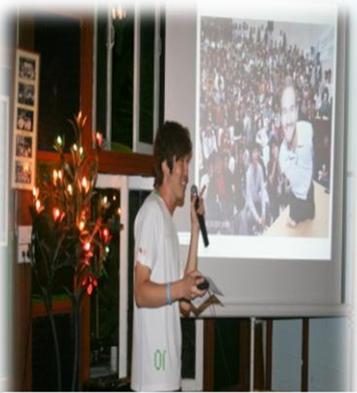




Welcoming & Greeting



Dinner & Music



Lecture & Sharing

캠페인  
진행과정

# School & Home-Stay Program

- (1) In Wat Phao Sam Ka
- (2) In Wat Sri Bang Wan





# Wat Phao Sam Kha

11월, 본격적으로 홈스테이에 들어가면서 Wat Pao Sam Kha 초등학교에서 활동하게 됐다. 전교생이 108여 명인 조그마한 학교로 우리는 학교 활동을 Support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Support한 활동 중에는 ' 홍콩 인터네셔널 크리스찬 학교' 와 함께한 활동과 벽화 그리고 리그라통 등이 있다.

특히 우리의 주요 활동은 수업 진행이었는데, 한국어, 한국문화, DIY(Do-It-Yourself) 그리고 영어를 가르쳤다. 또한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한국어 회화 문장을 알려줬다.

또한 우리들은 각 자 Wat Phao Sam Kha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집에서 일주일에 3일씩 머물렀다. 학교 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엄마와 아빠의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각자의 집에 점점 적응해갔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활동 문제가 겹치면서 1달 만에 마을을 떠나게 됐다.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소중한고도 아쉬움이 남은 시간이었다는 건 분명하다.



# Wat Phao Sam Kha

12월 11일. 우리의 새 학교와 마을인 Wat Sri Bang Wan! 우리가 이곳에서 했던 활동들은 전 학교와 비슷했지만 전 학교의 실패와 경험들 덕분에 조금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다.



아침조회시간에는 한국어 회화 한마디를, 수업시간에는 태권도, 한국어, Art를 가르쳤다. 특히 여러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학교 도서관에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학교 퍼레이드, 태국 악기 배우기 등 태국과 지역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홈스테이는 남자 단원 2명이 한 집, 여자 단원 2명이 한 집을 살게 됐는데, 중간 며칠을 제외하고는 약 17일 동안 계속 머물렀다. 힘들기도 했지만 조금은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기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소중한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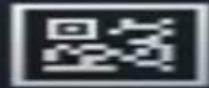
5개월 전의 태국 팀과

현재의 태국 팀의 ‘대화’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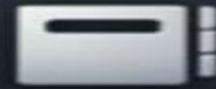
# RaonAtti 10 Thai's Chat



Ton Phai



Dok Khem



Ton Yong



Ton Khun



Friends



Chats



Add Friends



Settings



Ton Phai



Before



After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

## RaonAtti 10 Thai (4)

Jae Jun



Hello Ton Phai. 한국어로 해야겠다 ...

Ton Phai



Sawat di khrab 5개월 전의 나야. 근데 말야 내가 5개월 전의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때 나는 어땠지?

Jae Jun



에이구 뭐 얼마나 살았다고 그걸 잃어버리냐  
나는 근 제대 후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바보 였어. 막연히 무엇인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

Ton Phai



음 맞아.. 고민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한 것은 없었지.  
그래 내 대학 생활은 어떠니?




전송

# RaonAtti 10 Thai (4)

Jae Jun



한 마디로 재미없어.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나한테 맞지 않구나라는 고민 때문에 집중도 되지 않았고 막연히 학교만 나갔던 거 같아.

Ton Phai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의 나는 참 용기가 없었던 거 같아. 무든 부딪혀봐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지. 항상 불안하고 나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허덕였던 것 같아.

Jae Jun



맞아 난 지금 너무 답답하지. Ton Phai 너는 지금 그 때의 고민 좀 해결 했니?

Ton Phai



솔직히 말하면 뭐 하나라도 확신을 갖고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잘한 것이 있다면 라온아띠를 지원한 거지

Jae Jun



으잉 그게 무슨 말이야?




전송

# RaonAtti 10 Thai (4)

Ton Phai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 없고 아직 뭘 배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남들이 못할 많은 경험을 한 것은 맞거든. 분명 보이지 않지만 난 발전 했을 거야

Jae Jun



응 그렇구나. 근데 너 아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자나 혹시 젤 아쉽거나 후회하는 부분 있어?

Ton Ph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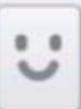
당연히 있지... 내가 젤 후회 하는 것은 내가 맘에 들지 않거나 나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원래 내가 속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어려워했어 두려웠거든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고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될까 봐서 무서웠지

Jae Jun



맞아 5개월 전의 너인. 나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었지.





# RaonAtti 10 Thai (4)

그래 지금도 똑같이 두려워 그리고 솔직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 하지만 많이 발전한 것 같아 타지에서 팀생활 하면서 참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 물론 태국어와 영어로 대화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말이야.

어쨌든 이제부터 더욱 나 자신한테든 누구한테든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될 거야. 이게 너나 나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소통하는 삶을 살 것이라 믿어

아 맞다!! 5개월 전의 재준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가. 누구한테든 자신의 솔직한 현 감정을 말해보는 것도 시도해보기로. 또 다르게 발전한 너를 발견할 것이라 믿어 ㅎ  
부럽다. 그리고 화이팅이다.

Ton Phai



Ton Phai





Dok Khem



Before



After

“Just Do It”

## RaonAtti 10 Thai (4)

Byeol Gi



시간이 엄청 빠르는데?! 어땠어?? 서울  
초년의 첫 해외생활 ㅋㅋㅋ

으!악! 정신없었다! ㅋㅋㅋ 너무 놀라당  
지나갔어!!근데 너무 즐거웠어! 물론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점만 살~짝 다르게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 감사했어 😊

Dok Khem



Byeol Gi



힘든 점을 다르게 생각하면 감사하다라 ...  
힘든 건 힘든 거 아냐? 힘든 게 뭐였어?

내 첫 목표. '인간관계에 대해 배워오기' 였던  
거 기억나? 가장 힘든 건 사람이었어.. 수 많은  
사람과 만나서 웃고 교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나지만, 태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았어.

Dok Khem





# RaonAtti 10 Thai (4)

Byeol Gi



맞아. 그럴 때면 5개월 전의 너, 그러니까 난 회복될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잠시 거리도 두곤 했었어.

맞아. 근데 거기선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곳이었잖아. 그러면서 조금은 알게 될 게 있어. '대화'가 중요하단 거. 현지 스템들과의 오해가 쌓여 힘들 때 결국 오해의 원인과 풀 수 있었던 실마리 모두 '대화'였어. 평소에도 솔직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해야 할단 걸 배웠지.

Dok Khem



Byeol Gi



오. 예전에 종종 그런거 먼저 말하기 싫고 그래서 물어두고 모른 척 하거나 그 사람을 냉정하게 쳐냈었는데!

그치~ 근데 순간이더라고! 어색하고 힘든 거 ㅋㅋ 그리고 또 배운 건, 고마움과 미안함은 먼저 한다고 해서 절대로 풀리는 게(?) 아니란 거지. 오히려 인색하면 초라한 것 같아 😊:::

Dok Khem





## RaonAtti 10 Thai (4)

Byeol Gi



또? 일하는 건? 너 원래 뭐 할 때, 시작 전에  
어어엄청 잠생각 많아지는 애였잖아 ㅋㅋㅋ  
그래 놓고 시기 놓친 것도 많고 ㅋㅋ

하... 그니까 말야, 왜 그랬지? ㅋㅋ 그래서 태국에서 스템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중에 'Don' t think too much'  
'Don' t be serious' , 'Enjoy! Sabai Sabai na?!' 였음  
ㅋㅋ 그래서 '에라, 일단 미친 척하고 해보자! 대신 이왕  
해야 하는 거 즐겁게!' . 그럼 끝난 뒤에 보람도 후련함도  
함께 오더만! 그렇게 이끌어준 현지 사람들에게 진짜  
고맙더라 ㅋㅋㅋ

Dok Khem



Byeol Gi



올, 잘 하고 온 것  
같은데??

배운 점일 뿐이야! ππ 내가 태국에서 온전히 다  
실천하지 못한 것들.. 후회하는 것들이 많긴  
해... 결국 나 정말 잘 했어! 라고 말할 순 없는 것  
같아.

Dok Khem



전송



딤용(Ton Yong)



Before



After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

# RaonAtti 10 Thai (4)

Sujin Jo



판용! 5개월 어땠어? 너 태국에 가기 전에 걱정 많이 했잖아. 다른 나라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자원활동도 처음이  
고.



Ton Yong



Ton Yong



음, 한마디로 ... 아노미?

Sujin Jo



ㅋㅋㅋㅋ 아노미? 왜?



# RaonAtti 10 Thai (4)

사람, 마음, 생각 등 새로운 것들을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 특히 사람!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거였잖아. 슬럼프가 왔을 때는 새로운 언어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 하지만 모순적이긴 해도 사람들 덕분에 버틴 거지 뭐.

Ton Yong



Sujin Jo



사람? 근데 너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회의를 느껴서 라온아띠로 도피한 것도 있잖아. 취업에 아등바등 거리는 너도 싫었고 사람들도 싫었고 그 속에서 상처 받고 주는 관계가 넌더리 난다며.

내 스스로와 사람들의 이기심에 지쳐있었지. 그래서인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는 게 부담스러웠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 돌아설까.' 이런 못된 생각들을 했었어.

Ton Yong



Sujin Jo



거기서도 여전히 못됐구나.



# RaonAtti 10 Thai (4)

Ton Yong



하하. 응. 여전히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사실 난 같이 맛집  
 을 찾아가고, 생일파티하고 이런 일들은 한국 친구들과하고만 할 수 있  
 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여기서 사람들과 이런 일상들을 나누고 내게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됐어.



전송

## RaonAtti 10 Thai (4)

Sujin Jo



어떤 반성?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다면 서로가 상처를 덜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 좀 더 일상을, 대화를 나눠볼걸 이런 생각. 그래서 사람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

Ton Yong



Sujin Jo



넌 니 스스로가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 봤다고 생각했잖아.

완전 애기였지 뭐. 생각도 ... .. 얼굴도?^o^

Ton Yong




전송

# RaonAtti 10 Thai (4)

Sujin Jo



그럼 자원활동에 대한 생각도 좀 생겼겠네? 넌 거기 가기 전에도 자원활동에 대해 전혀 감이 전혀 안 온다고 했잖아.

자원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감이 잘 오지 않아. 하하하, 그냥 산다는 게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수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수만 명의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이번에 안 것 같아. 이제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보고 싶어.

Sujin Jo



고민들이 전과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취업, 졸업, 신문 등이 니 고민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취업은 내 고민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대로 사람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생각해보진 않았어. 음, 이렇게 설명해볼까. 예전에 내가 쓴 글에는 진짜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사람을 위로할만한 마음이 없었어. 그리고 그걸 크게 이상하게 생각해보진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 글들이 부끄럽고 지금의 내 상태도 부끄러워졌어. 직접 현장에서 평생 사람들을 위해 사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난 글로 혹은 내 편집한 결과물로 사람들을 위해보고 싶어.

Ton Yong



Ton Yong



# RaonAtti 10 Thai (4)

Sujin Jo



전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

음, 그래? 아주 약간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어. 한국에 돌아가면 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모든 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난 역시 키끼야!! 게을러서 그렇지 태국에서처럼 7시에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

Sujin Jo



`o` 몇 시에 일어났더라?

하하. 호호. 헤헤. 히히.....9시...?10시...?ㅋㅋㅋㅋㅋ 갑자기 부지런해져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한 생각 내 고민들은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싶어~ 그리고 이 고민들이 있게 해준 그 순간들도~!

Ton Yong



Ton Yong



Sujin Jo



뭔가 갑작스럽게 포장하는 냄새가 나긴 하지만 난 항상 널, 내 스스로를 믿으니 까. 응원할게! 쑥쑥! 힘내!



전송



Ton Khun



Before



After

“. (;Rest symbols)”

# RaonAtti 10 Thai (4)

Jun Bum



돈 쿤, 5개월 동안을 한 단어로 표현 한다면?

Friends of Thailand

Ton Khun



Ton Khun



Look around here~



## RaonAtti 10 Thai (4)

Jun Bum



가장 감명 깊었던 일과는 무엇인가요?

나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걱정하고 2시간이 걸리는 곳까지 홀로 찾아갔던 그 시간이 나에게도 너무나도 행복했던 순간이야.

그리고 그 좁은 차 안에서 만난 이탈리아인 '안첼리노' 와 그의 친구 '스티븐' 에게 배웠던 이탈리아 공부시간 또한 나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긴 것 같아.

Ton Khun



Ton Khun



부와~나~, 존나따~ (;안녕하세요~)

전송

# RaonAtti 10 Thai (4)

Jun Bum



라온아띠를 하게 될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공공 연이 허락 받은 휴식 시간이 필요했고 내 인생에 "쉼표" 라는 두 글자를 쓰길 원했어.

Ton Khun



Jun Bum



그럼 "쉼표" 를 찍었다고 생각하나요?

5개월 전에 한숨 깊게 들이쉬는 시간 없이 달려왔던 나에게 이 기간은 "최고의 쉼표" 가 되었던 것 같아.

Ton Khun



그리고 한 걸음 뒤에서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것 같아.

Ton Khun





# RaonAtti 10 Thai (4)

Jun Bum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요?

이 곳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나만의 경험이 아닌 모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끊임 없이 갖고 싶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Ton Khun



Jun Bum



지금, 생각하는 한 장면은 무엇인가요?



Ton Khun



It looks like a ray of sunshine in my life.

전송